

행정사무감사·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원연찬 실시



▲ 11월 2일~3일까지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제265회 임시회

도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현안심의

충청북도의회는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제 265회 임시회를 열고 2007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기타 현안을 처리하였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원안가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그리고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신축부지, 충북학사 신축부지 등 도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자문위원 초청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충청북도농업인단체 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수안보 조선관광호텔에서 도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과 한국양성평등교육



▲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진흥원 이상화 교수를 초빙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과 사업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제266회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며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개 회 사

도민에게 제시했던 주요시책 알찬 마무리 당부



오 장 세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사회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디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하면서 각종 지역구 행사 참여 등 활

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 도민제전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의 달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국정감사 수감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 2차 정례회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충분한 연구검토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도민에게 제시하였던 각종 주요시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빈틈없이 준비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사회 회기는 6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도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체의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예산안 심사 기법 등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면서 재충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니 의

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느덧 가을이 저물고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념 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겨울철 도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월동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인사교류 확대 촉구

(중앙 ↔ 도, 도 ↔ 시·군)

박 재 국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150만 충청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직한 공직인재 양성'은 충북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충청북도지사는 '중앙과 도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한다.

세계 각국과 일류기업들은 지금 '살아남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 시장 확보, 생산성 향상 등 각 분야에서 생사를 걸고 생존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며 치열한 경쟁은 '인재 양성'과 '인재 쟁탈전'이라고 한다.

최근 충북도가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북 인재양성전략(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충북발전을 위해 중앙에서 정책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북 출신의 믿음직한 공직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4기 들어 도정사상 처음으로 국비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고, 도지사 취임 1년 4개월 만에 65개 업체, 133개가 넘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다.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개발사업 추진에서 충북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150만 충청도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직한 공직인재 양성'은 충북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충청북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은 '중앙과 도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로 도민들의 희망인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과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과 열정으로 인사교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충청북도대표단 야마나시현 방문

- 우호·협력·공동발전 모색 -



▲ 충청북도대표단이 일본 야마나시현을 방문하여 양·도·현간의 우호·협력증진을 다졌다.

충청북도대표단이 11월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양·도·현간의 우호·협력교류 증진을 위해 일본 야마나시현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에서 정우택 도지사는 '15년간 다져온 우호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교류 차원을 한단계 높여 공동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고, 오장세 의장도 '양 지역이 진정한 호혜적·국가적 파트너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의회차원에서 양도·현의 우호교류 증진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충북에서 열린 15주년 기념식에 야마나시현 대표단이 방문한데 따른 답방형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신뢰와 협조로 양·도·현의 화합과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66회 정례회 11월 20일부터 32일간 열기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 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제266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6회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는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후 12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여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부의된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32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간담회 ▶
11월 2일 제1차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266회 정례회 회기를 협의하고 있다.



▶ 현안심사
11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제266회 정례회 회기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국 최초『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



▲ **현지확인** 11월 5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 열린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현지확인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먼저, 11월 5일과 11월 6일에 열린 제1·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지사가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취득,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 조성, 충북바이오연구타운 부지 매입, 자치연수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등 총 5개 사업, 246억7천만원의 공유재산을 신규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각 사업별 현지 확인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 후 심사를 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신채되거나

소규모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금으로 도유재산의 감소방지와 집산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의 건, 둘째, 기업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대상기업에 제공할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의 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BT, NT, BNT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한 충북바이오 연구타운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의 건, 자치연수원 교육생의 원활한 체육활동과 취미소양 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 진천소방서 관할구역인 덕산면 일원의 산업단지에 공장증설과 인근의 혁신도시 건설 등 미래 소망 수요의 증가로 인한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청사 신축의 건 등이다.

그리고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간, 자치단체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부문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

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원활한 갈등예방과 조정을 위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이해관계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도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권고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갈등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조사·연구·교육훈련과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밖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과 운영 지원조례안」과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충북학사 신축 대상지 등에 대한 현지답사 실시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기동)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연수원 다목적 체육관 신축 관련 사항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성립전예산 사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충북학사 신축 대상지를 답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자치연수원의 다목적 체육관 신축은 교육생의 체육활동과 취미소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과 인근기관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면적 1,400㎡ 규모로 국·도비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목적 체육관 신축으로 스포츠댄스, 요가 등 그간 교육여건 미비로 활성화 되지 못했던 취미소양 과목과 외부 활동이 어려운 강우기 및 동절기에도 원활한 체육활동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적절한 예산투입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의 총 10개 단위사업 51억3천만원 규모의 성립전예산 사용계획에 대한 보고는 지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 관련 특별교부금과 교육감선거 경비편성을 위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 특별교부금 등이 편성되었으며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당부했다.

또한 1991년 건립된 충북학사는 생활공간 협소와 건물 노후로 인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제공코자 충청북도지사와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 외 2인의 의원이 학사 후보지를 현지 답사 하였다.

간담회

11월 5일 다목적 체육관 신축과 성립전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현지확인

11월 6일 충북학사 신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동의안 심사

간담회

11월 7일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 연합회 임원들과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운숙)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투자본부 소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지난 11월 2일에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동의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위원들은 동의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종료되어도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20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집중 추궁하였다.

또한 11월 7일 오전에는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한·미FTA 협상에 따른 우리 도 농업경영인들의 의견 수렴과 가고 싶은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 등 현안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한·미FTA가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와 쇠고기의 수입 개방 등으로 우리 농업 부문에 엄청난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타결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위원들은 어려운 현안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도의회와 농민단체가 서로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도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의안 심사

11월 2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문위원 초청 직무연찬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실시된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현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제266회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건설·문화·체육분야에 대한 문제점 등 현 상황에 대한 실태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과 직무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가려낼 수 있는 충실한 자료제출 요구가 행정사무감사의 관건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소관부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내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고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 녹지훼손 대책, 합류식 하수관 대책, 환경관리정책 등 환경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의 하였고, 건설재난관리본부와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자료를 수집하여 빈틈없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로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안심사 ▶

11월 5일 건설문화위원회를 열고 현안을 처리하고 있다.



◀ 직무연찬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문위원 초청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처리안의

*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민선이후 공공부문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해결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손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 방안 요구
-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 제도를 마련함.

[주요내용]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 도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권고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으로는 도의회 의원, 대학 교수, 변호사, 언론인, 시민단체 재직자, 그 밖에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함
 -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2조)
 - 도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함.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산재되거나 소규모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금으로 도유재산의 감소방지와 집산화 등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지를 대체취득
-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
 - 기업입지가 불리한 지역에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대상기업에 제공할 공장부지
 - 오송생명과학단지내 BT,NT,BNT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입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북 바이오연구타운」유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
- 자치연수원 교육생의 원활한 체육활동과 취미소양 프로그램운영, 인근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치연수원 부지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
- 진천소방서 관할구역인 덕산면 일원의 산업단지에 공장 증설과 인근의 혁신도시 건설 등 미래 소방수요 대체를 위한 덕산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청사를 신축

[주요내용]

-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 위 치 : 도내 일원
 - 매입규모 : 55,000㎡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 사업비 : 2,592백만원(도비)
- 전략적 기업유치 위한 도유지 확대조성
 - 위 치 : 도내 3개 지역
 - 매입규모 : 343,108㎡
 - 사업기간 : 2008. 1 ~ 2008. 4
- 「충북바이오연구타운」부지 매입
 - 위치 :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오송생명과학단지 30블럭
 - 매입규모 : 54,833㎡
 - 사업기간 : 2008 ~ 2012(5년)
- 사 업 비 : 8,334백만원(도비)
- 다목적체육관 신축
 - 위 치 :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11번지
 - 신축규모 : 1동 1,400㎡
 - 사업기간 : 2008 ~ 2009(2년간)
- 사 업 비 : 2,200백만원(교부세 1,000·도비 1,200)
- 진천소방서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287등 3필지
 - 사업규모 : 토지매입 3,300㎡
 - 건물신축 : 지하1층·지상3층 740㎡
 - 사업기간 : 2008 ~ 2009(2년간)
- 사 업 비 : 1,550백만원(도비)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원안가결)

[제안이유]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무상사용연장 신청기간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의 대부기간이 불일치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1세기 국가과학기술중심 사회를 주도할 BT, NT 관련 기초과학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에 중심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후 취득하여,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 '04.11.4 ~ '07.11.3(3년간)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으나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집중재산으로 용도변경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의 대부료 면제로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무상대부 계약을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주요내용]

- 위 치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정리 804-1 의 2필지
- 면 적 : 224,254.2㎡
- 용 도 : 연구시설 용지
- 신청인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기 간 : 2007. 11. 4 ~ 2023. 11. 3
- 대부료 : 면 제

의원칼럼

소비자기본법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책임



이 규 원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지난해 9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올해 4월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소비자기본법」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은 종래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 정책의 수립, 소비자 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청북도에서도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에 맞추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가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소비자의 권리는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소비자보호특별교서로 안전의 권리, 알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 등 소비자의 4가지 권리를 천명한 것에서부터 소비자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도에서도 일찍부터 소비자행정에 관심을 갖고 소비자행정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0년 5월 17일에 「충청북도 소비자 보호조례」를 전문개정하고, 지난 8월 「소비자기본법」에 맞추어 전부개정 하였다. 특히, 2003년 8월 20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하여 도청 내에 충청북도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우리 도의 지난해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처리 실적은 13,129건이 접수·처리되어 월평균 1,0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에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소비자원은 우리 도의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일까 「소비자기본법」 시행으로 도입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

도(법제68조)에 따른 제1호 사건이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여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 도의 청원군 오창읍 소재 W아파트 주민들은 2007년 4월 주식회사 선우와 KCC새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시의 강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부품인 보강빔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하자 담보책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불완전 이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사대금의 8% 또는 10%(보완공사를 받은 일부세대는 8%, 보완공사를 받지 않은 세대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한 바 있다.

위의 사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많은 소비자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모든 일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 문제도 예방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소비자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물품 등을 구입하기 전에 정말로 필요한가를 한번 더 생각하고, 물품을 무료로 주거나 모르는 사람의 권유는 일단 조심하고, 소비자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은 함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계약을 하였다면 구두가 아닌 계약서를 받아두고, 계약내용이 판매원의 설명과 일치하는가 꼭 확인하고 판매자의 신원과 거래처의 주소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의심하라. 그래야만 아래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물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 위해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유로이 선택하며,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의견반영 및 적절한 보상과 소비생활 교육받음은 물론, 소비자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고,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도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의원칼럼

농촌관광과 문화마케팅에 거는 기대



김 인 수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문화(Culture)는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생활양식의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써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코펜하겐 미래학 연구소장 롤프 얀센(Rolf Jensen)은 '정보사회 다음은 꿈의 사회이며, 꿈의 사회에서는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든 꿈을 사고팔게 된다'라고 밝혔으며 미래에 각광받을 사업은 전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체험을 파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기업들은 이미 문화와 예술을 담아내는 명품 브랜드로 시장에서 승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보르도 TV는 2006년도에 출시되면서 3주 만에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하였으며 서유럽에서 LCD TV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농촌개발과 농촌관광을 문화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구체적인 실천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 농업 농촌은 한미 FTA 등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충북도 예외일 수 없다. 이때 정부에서는 농촌 활성화의 대안으로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약 500개 마을을 농촌관광 마을로 지정해 활동을 모색 중이며, 우리 충북에서도 녹색농촌체험마을 18개소, 전통 테마마을 7개소, 팜스테이마을 16개소, 산촌마을 조성 등 범국민적인 농촌 1社 1村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농촌관광사업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 다령이마을, 토고마을, 부래미마을 등 일부 성공사례가 나타나면

서 자신감을 얻었으나 한편으로는 황토, 두부, 인삼, 마늘, 포도 등 '전국 농촌관광의 불거리, 먹거리 마을이 똑같다'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농촌관광은 도시민들에게는 여가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촌문화를 재발견하고 창조하는 문화운동이기도 하다. 이제 농촌관광도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시점이며 이러한 시점에 몇가지 문화마케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소의 문화화이다.

농촌을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면서 방문객을 위한 편의공간을 문화적으로 정비하는 것인데 남이섬의 경우 술병이 나뭇구멍은 평범한 유원지에서 문화관광지로 변신한 좋은 예이다.

둘째 제품의 문화화이다.

농산물도 브랜드에 의한 경쟁시대를 맞고 있어 브랜드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특산물에도 문화를 담아야 한다. 브랜드 연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행, 문화이벤트, 축제 등 소비자와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 있도록 마케팅하는 전략으로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라벨로 사용하는 프랑스

의 최고급 와인 샤토 무통 로일드가 좋은 예일 것이다.

셋째 문화를 활용한 농촌관광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 스스로 '문화 CEO'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주민들 스스로 생활이 즐겁고 풍요로운 관광객은 저절로 찾아온다는 생각을 할 때이다. 엄청난 비용이 드는 문화이벤트만이 능사는 아니며 최소비용으로 문화마케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개최되는 한국관광총회 및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을 통하여 역사·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상품 발굴 홍보에 진력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 도의 관광이 중부내륙 레저·휴양의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느새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깊은 겨울잠을 자고 순한 봄바람이 기지개를 켜면 우리 농촌마을에도 활기를 되찾아 가길 본 의원은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제266회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

● 회 기 : 2007. 11. 20. ~ 12. 21. (32일간)

일시	부 의 안 건
11. 20. (14: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7. 11. 20. ~ 12. 21.(32일간) 2.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기타 부의 안건
11. 21.~ 12. 9	● 본회의 휴회 ※상임위원회 활동 ● 행정사무감사(11. 21. ~ 11. 30. / 10일간)
12. 1.~ 12. 9	● 본회의 휴회 ※상임위원회 활동 ●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안전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12. 10.~ 12. 13	● 본회의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 안전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12. 14. (14:00)	● 제2차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기타 부의 안건 처리
12. 15.~ 12. 18.	● 본회의 휴회 ※상임위원회 활동 ●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 안전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12. 15.~ 12. 18.	● 본회의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 안전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12. 21. (11:00)	● 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부의안건 및 기타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의회운영 위원회	● 제26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의회사무처)
행정자치 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교육사회 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
산업경제 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및 주요현안 심사
건설문화 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위원회 소관부서와 간담회 및 주요현안 심사

의회사무처 1사 1촌 일손돕기



▲ 농촌일손돕기 11월 13일 도의회와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주 모듬 마을을 찾아 일손돕기(고추대 뽑기 및 부산물 정리)를 하고 참쌀과 밤을 구매했었다.

건강보감

겨울철, 건강을 위한
한방차

▶ 구기자차

구기자 앞에는 모세혈관 등의 혈관벽을 튼튼히 하고 동맥경화를 막는 비타민C가, 열매에는 혈액순환을 활발히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잎과 열매는 차를 만들어 먹거나 술을 담그며 요트로 는 나물을 무쳐 먹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뿌리 껍질을 지골피라 하여 약재로 쓴다.

- 재료 : 구기자 15g 물 : 800ml
- 방법 : 구기자 열매는 찬물에 얼른 씻어서 건진다. 주전자에 열매를 넣고 물을 부어 고운빛(빨간색)이 우러날 때까지 끓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쪄나 설탕을 섞어 먹는다. 특별한 맛이 없으므로 생강, 계피, 대추와 함께 끓이면 한결 맛이 좋다.
- 효과 : 면역 증강물질의 생산, 조혈작용과 성장호르몬의 촉진작용을 한다. 간장에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시키며 혈액 내의 혈당을 감소시킨다. 탈모 방지에도움이 된다. 신경쇠약, 시력감퇴, 정력감퇴에도 효과가 있다.

▶ 두충차

두충나무의 잎인 두충은 간장과 신장에 작용하여 이들 두 장기가 주관하는 근육과 골격을 강건케 하며 불로 장수의 약효가 있다고 한다. 한방에서는 허약한 신체기관에 활력을 주고, 심신을 상쾌하게 하는 보약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력 및 기억력 감퇴, 간장병, 심장병,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 두충의 1회 복용 용량은 15~20g으로 너무 지나치게 정력이 좋은 사람은 피하는게 좋다. 또 얼굴로 자주 열이 뜨는 사람도 자주 복용하면 좋지 못하다.

- 재료 : 두충잎 : 20~30g 물 : 1
- 방법 : 두충잎을 잘게 찢어 약간 볶거나 소금물에 담갔다 건져서 말린다. 두충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맛이 우러나기를 기다린다. 따뜻한 찻잔에 우러난 물을 마신다.
- 효과 : 고혈압, 동맥경화를 방지할 수 있다. 노화되어 가는 골조직이나 관절장애 영양을 공급하고 퇴화를 방지하므로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 신경통, 요통, 허체 허약, 성기능 감퇴에 유효하며 자궁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습관성 유산에도 장기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다리가 장딴지 쪽으로 땅기는 증상에도 효과가 좋다.

▶ 오미자차

홍적색을 띠고 있는 오미자는 색이 아름답고 향취가 있으면서 신맛, 단맛, 짠맛, 매운맛, 쓴맛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맛과 단맛이 가장 두드러진다. 오미자 열매의 껍질과 살은 달고, 씨의 속맛은 맵고 쓰며 전체적으로 짠맛이 난다. 이 다섯 가지 맛은 몸에서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한다. 짠맛은 간을 보호하여 간에 좋고, 맵고 쓴맛은 폐를 보호해주어 기침이나 천식에 좋으며, 단맛은 자궁에 좋다. 오미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광대뼈가 붉은 사람은 사용을 금한다.

- 재료 : 오미자 : 20g 물 : 400ml
- 방법 : 잘 말린 오미자 20g에 400ml의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은근히 끓인다. 끓인 물이 1/3쯤 남았을 때 찌꺼기는 걸러내고 끓이나 설탕을 타서 마신다. (단, 오미자는 오래 끓이면 떼은 맛이 강하므로 주의한다.)
- 효과 : 두뇌활동을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혈액내의 혈당량을 감소시켜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 간에서 강장의 효소를 활성화 시킨다. 여름에 더위에 지쳐서 심한 갈증을 느낄 때 마시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많다. 성 기능 감퇴로 인한 유정, 무정, 조루증에 유효한

반응을 보인다.

▶ 초대두요법(醋大豆療法-초콩요법)

한방에서는 콩을 대두(大豆), 자흑두(雌黑豆, 쥐눈이콩)라 칭한다. 콩은 예로부터 해독작용이 우수하고, 몸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이 풍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초콩요법은 아니지만 집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콩 한줌을 물에 2일간 담가서 불리고 난 후 꺼내서 식초와 벌꿀(식초 1컵에 벌꿀 2스푼 정도)에 일주일정도 담갔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공만을 건져서 밥숟가락으로 한수저씩 먹는다. 냉장실에 보관한다.

콩에는 여성호르몬과 유사한 천연성분이 있어 골다공증을 방지하는데 부작용 없이 효과가 좋으며, 당뇨에도 효과를 본다. (단, 당뇨식에는 벌꿀은 빼고 한다)

위와 같이 먹기가 어려울 경우 콩으로 만든 음식(콩조림, 된장찌개 등)을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 콩을 오래 복용하면 간혹 기(氣)가 울체되어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일정기간 떠났다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태영(백제한의원장)

의원동정



◀ 권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11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사)한국청소년운동연합 충북도지부장으로 취임.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11월 8일 옥천읍 관성회관에서 열린 제18회 옥천군 농업인대회에 참석, 참가자 및 관계자 격려



◀ 이대원 의원
(청주 제2선거구)

11월 7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2007충청북도중소기업대전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여론수렴



◀ 이명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11월 13일 보은군 삼년산성에서 열린 제14회 평화통일열원군민등반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11월 8일~11일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자매결연 15주년 우호교류행사에 참석, 협력증진방안 협의



◀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11월 9일 청주시 상당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정찬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11월 8일~11일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자매결연 15주년 우호교류행사에 참석, 협력증진방안 협의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11월 3일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에서 열린 송평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주민 애로사항 청취



◀ 강태원 의원
(비례대표·한나라)

11월 18일 증평종합스포츠타에서 열린 제7회 국민생활체육검도연합회 검도대회 주관, 환영사 및 여론수렴



◀ 연만흠 의원
(증평 제2선거구)

11월 9일 증평군에서 열린 제45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소방관계관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11월 11일~14일 중국 광저우자동차기과의 자매결연 체결식에 참석, 축하 및 상호교류 증진방안 협의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11월 28일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 협력방안 모색 및 현안 논의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11월 10일 중앙초등학교에서 열린 제3회 충북도청 직원화합마음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박응용 의원
(옥천 제2선거구)

11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아 옥천교육청을 방문 관계자 격려



◀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11월 10일 단양군 영춘면 영춘초등학교에서 열린 영춘면민 체육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최광욱 의원
(비례대표·한나라)

11월 19일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사고파는 성 절망, 아름다운 성 희망 만들기' 연극제에 참석, 심사 및 관계자 격려

〈말풀이 세상풀이〉

구사화지문(口是禍之門)과 '아니면 말고'

당나라 명재상 풍도(馮道)가 지은 설시(舌詩)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口是禍之門 舌是斬自刀(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제 몸을 베는 칼이다)

한 마디로 입조심,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연산군이 이 문구를 인용, 조정신하들에게 신언패(愼言牌)를 차게 하고 상소와 간언(諫言)을 막는 등, 언로(言路)차단에 악용 했지만, 이는 곡학(曲學)의 한 표본일 뿐, 본연의 뜻을 올바르게 살려 쓴 것이 아니다.

역시 풍도의 설시에 나오는 사불급설(事不 급설)도 같은 뜻이다. 사(事)는 4 마리의 말이 끄는 빠른 수레를 가리키는 것이요, 설(舌)은 입안의 혀를 가리킨다기보다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言)을 뜻한다. 이는 곧 아무리 빠른 수레도 한 번 지껄인 말을 따라가 잡을 수 없으니 헛된말, 흥한 말, 남을 모함하거나 자신에게 화근이 될 말들을 삼가라는 것이다.

이 밖에 우리가 흔히 쓰는 화자구출

병자구입(禍自口出 病自口入: 화근은 자신의 입에서 나가고 병은 자신의 입으로 들어온다)이란 글귀도 또한 같은 의미다.

평소 제자들의 언행에 근신을 강조한 공자가, 제자 남용(南容)을 조카사위로 삼게 된 일화 한 토막, 논어에 나오는 얘기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남용이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을 세 번씩이나 되풀이해 읽으며 그 깊은 뜻에 감탄해 하였다.

白圭之 尚可磨也(백규지점상가마야: 흰 구슬이 이지러진 것은 오히려 갈 수 있지만)

斯言之 不可爲也(사언지점불가위야: 말(言)이 이지러진 것은 어쩔 수 없다.)

시경의 대아(大雅) 역편(抑篇)에 나오는 것으로, 윤리성과 도덕성, 책임성이 결여된 말은 한번 해 놓으면 바로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윽히 보고 있던 공자가 말했다.

‘남용은 나라에 법도가 있으면 출세할 것이요, 법도가 없어도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글을 몇 번씩 거듭해 읽고 스스로 감탄할 만큼 그 뜻을 바로 새긴다면, 반드시 이를 실천하여 옳고 바른말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니, 신뢰를 얻어 남의 숭앙을 받거나 군주의 눈에

띄어 크게 출세를 할 것이다. 만약에 세상이 어지러워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가 하는 말에 거짓이 없고 그른 것이 없을 것이니 화를 당하거나 욕을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남용을 기특하게 본 공자는 훗날 그를 조카사위로 삼았다. 말을 통해서 인품을 판단하고 나아가 그의 장래까지 짚어 본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검증’ 꼬리표를 붙인 술한 말잔치가 풍년을 이룬다. 입들이 험악해지고 그 안의 혀가 꼬인 탓인지, 나오는 말들이 모두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이거나 스스로 국민 앞에 다짐했던 약속을 뒤엎는 것이어서 유권자들을 혼란케 한다.

서로가 자신의 말은 진실이고 상대방의 말은 모략이라고 방패막이를 하거나, 말 바꾸기나 변신의 명분을 둘러대지만, 이를 듣는 유권자들은 진실과는 먼 곳에서 환멸과 배신을 느낄 뿐이다. 활자나 전파를 타고 거의 동시간대로 전국에 확산되는 이러한 말잔치 속에서 정치도나 윤리의식, 책임감을 찾아보기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그렇게 쏟아낸 말들이 ‘사불급설’로 세상에 퍼져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리려 놓고, 고소·고발사태가 난무하지만, 결국은 ‘아니면 말고’로 종지부를

찍는 게 백에 아흔아홉이다. 자신이 한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가 없고, 처벌도 숨방망이다. 지조, 신의 다 접어두고 정치적 변신과 말 바꾸기를 일삼는 카멜레온 정치인들이 받는 여론의 질타 역시 너무 관대하다.

때문에 흑색선전, 네거티브라는 별종의 허언·폭언들이 선거 때마다 기승이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불신은 깊어지고, 선거를 정치협잡꾼들의 이전투구쯤으로 여기는 일부 유권자들은 ‘늑들끼리 놀아라’라는 냉소주의에 빠져 투표조차 포기하기도 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그 황당한 허언, 흑색선전으로 톱톡히 덕을 본 후보가 있었고, 그 바람에 벼락치기로 권력의 중심부에 무혈입성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탓에 온 국민들 사이에 이념과 계층의 골이 깊어지고 안 겪어도 좋을 혼란과 시련을 참으로 많이 겪었다.

허언, 폭언이 ‘아니면 말고’로 끝나지 않고 ‘제 몸을 베는 칼’이 된다는 것을, 단 한 번의 위약·배신도 회복불능의 치명상이 된다는 것을 모든 정치인, 유권자들 철저히 인식토록 해야 공명선거, 믿는 정치, 바른 사회가 가능하겠건만..... 종적을 감춘 정치도도와 윤리, 말에 대한 책임, 그것들을 모두 어디 가서 찾누?

안수길(소설가:청주문인협회 회장)